

경기도토론대회 추산초 김수정 학생 優秀賞 수상

경기도민주시민교육연구회 주최 포천시 대표로 참가



경기도토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김수정학생(左)이 강희성 회장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민주시민교육연구회(회장 강희성)는 지난 22일 수원시에 있는 숙지고등학교에서 2004학년도 경기도학생토론대회를 개최했다.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정의하고, 학교 및 가정, 또래집단 내에서 민주적,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 포천시 대표로 출전한 추산초등학교 김수정 학생(사진,6년)이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포천중학교 강다민 학생과 포천종합고등학교 박종규 학생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도내 31개 시군을 대표하여 출전한 학생들은 진지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대회에 참가했으며 토론주제는 초등학생의 경우는 '학교내 휴대폰 소지 금지 논란'으로 정했고, 중학생의 경우는 '인터넷, 휴대폰 중심의 약어 속어 의외어에 대한 논란', 고등학생

은 '호주제,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논란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토론회 평가는 주제접근(30점), 논리성과 일관성(30점), 토론태도(20점),화법(20점) 등으로 평가했다. 다음은 이번 대회에 경기북부 지역 각 시군을 대표해 참가한 학생들의 명단이다. **□의정부시** ▶강유진(용현초 6년)▶전성호(의정부중3년)▶한도현(호원초 2년) **□포천시**▶김수정(추산초6년)▶강다민(포천중 3년)▶박종규(포천중고2년) **□동두천시**▶민진술(덕현초 6년)▶조한솔(백석중2년)▶정하나(보령여고2년) **□연천군**▶박수연(연천중3년)▶이순용(연천고2년) **경기호 주부명예기자** sujung8215@hanmail.net

“다함께 나누는 사랑”

제13회 경기도 특수학교(급) 예능발표대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윤옥기)은 “다 함께 나누는 사랑”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 학생의 잠재적 소질개발 및 사회 적응 능력을 신장하고, 일반인들의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제 13회 경기도 특수학교(급) 학생 예능발표대회를 지난 20일과 22일 수원과 의정부에서 각각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내 특수학교 12개교와 특수학급(수원, 안양, 성남, 남양주, 고양, 의정부) 대표팀들이 합주, 무용, 창작극, 사물놀이, 에어로빅 등 그동안 익힌 솜씨를 자랑했고,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천600명의 관객이 참가해 장애를 이겨내고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박수와 찬사를 보냈다. 특수학교(급) 학생 예능발표회

프로그램으로 성은학교에서 10명의 학생들이 목금 등 악기를 이용하여 네잎클로버를 합주했고, 새얼학교에서는 검무를, 밝은학교에서는 유아와 엄마가 함께 하는 창작극을 발표했다. 또 한사랑학교는 “작은 몸짓 한사랑되어”를 주제로 아름다운 소리를 선보였으며 해은학교는 “돌이서 한마음”을 주제로 댄스 스포츠의 한 종목인 라틴댄스의 대표적 춤 자이브를 흥겹고 친숙한 노래에 맞춰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밖에 태권도를 선보인 성심학교, 사물놀이를 펼친 일산초교, 한솔초교, 장암초교, 동원학교 등이 흥겨움을 더하였으며, 수원여중의 수화공연, 해원학교, 부일초교의 무용 등이 돋보였다. 경기도 특수학교(급) 학생예능발표대회는 199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3회째 실시되고 있는

행사로 장애 학생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수학생 예능발표대회를 관람한 자매결연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는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적이었다며 장애학생들을 이해하고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앞으로 더욱 행사를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제13회 경기도 특수학교(급) 예능발표대회에 참가한 장애우들이 예능발표를 하고있다.

■ 아름다운 가족 ■

세상에, 벌써 담배를 피워요



김영진
포천시청소년상담실장
경북대학 학사지원처장
포천신문 자문위원

최근들어 청소년의 흡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50% 정도가 담배를 피운다고 보고되어 부모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팔 수가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내에서 조차도 버섯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보통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 단계, 담배를 처음으로 피우는 경험 단계, 재 흡연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흡연의 습관화 단계로 이루어진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은 친구나 어른들이 담배 피는 것을 흥미 있는 행동으로 이해하여 피워 보거나, 친구들과부터 소위담배하지 않기 위해 동조성 행동으로 피우는 경험으로 나뉜다. 또 일부는 담배를 성인문화로 잘못 이해하여 자신이 담배를 피우면 성인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공부나 가족관계의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도 피우는데 나라고 못 피우냐 하는 남녀 동

등식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담배를 피워 무뎠다 다른 친구들도 다 담배를 피우더군요. 어쩔까 망설이니까 친구들이 그럴려면 나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담배를 피웠는데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같이 피게 되더라구요. 청소년들이 처음 담배를 피우는 경험은 보통 이렇게 시작된다. 이 시기의 발달 특성상 친구들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은 큰 정신적 고통이다. 청소년들은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보다는 때때 문화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담배를 피운다. 따라서 자녀가 담배를 피운다면 어떤 이유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지도 방법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여야 한다.

또래 관계에 의한 흡연이라면 건전한 때때 문화 형성을 위해 부모가 도와주어야 하고, 성인문화에 대한 동경이나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면 생활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여가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흡연을 묵묵하게 되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벌써부터'라고 야단을 치거나, 담배가 청소년의 신체발달에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주는지를 설명하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설득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애연가에게 담배의 해독을 설명하면서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 것과 같아서 별 효과가 없다. 다시 말해,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해서 어떤 동기로 담배를 피우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담배를 끊게 하는 첩경임을 알아야 한다.

담배를 처음으로 피우는 경험 단계에서도 청소년들은 흡연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지만, 부모나 어른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흡연을 계속한다. 어떤 자녀는 지속적인 긴장과 무로할 내지는 때때 흡연을 탈레기 위해 담배를 피우기도 한다. 여기서 특히 부모들이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부모가 크게 야단칠 것을 예상하면서도 내 고집을 피우려고 내 결정을 밀어붙여 보자는 심리가 깔려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 야단치거나 아니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우라는 논리는 자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신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대화를 하면서 부모보다는 친구 입장에서 자녀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재흡연 단계로 들어가면 청소년의 흡연 행동에 변화가 나타난다. 한번 흡연을 해본 청소년은 담배가 몸에 맞지 않는 경우나 부모의 감시가 아주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배를 무의식적으로 피우게 된다. 때문에 이 시기에 흡연 행동이 계속되는 것은 흡연하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흡연 행동이 습관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공부나 좀 안된다거나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그리고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주제가 심심해지면 담배를 피우게 된다.

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권도도록 도와주는가에 따라 흡연량도 달라지고 억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나 주변 선생님들은 흡연 행동이 자신의 눈에 보일 때만 충고를 하거나 아

를 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 평소 흡연에 대해 부모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극복해야 하는지 그리고 극복하는데 자녀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흡연 습관 단계는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 흡연을 하는 단계이다. 담배를 피우면 체육시간에 달리기 할 때 힘이 든다거나, 최근 들어 기억력이 다소 약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러나 이미 담배에 맛을 들인 자녀는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 담배를 피운다. 이 흡연된 본인이 담배를 끊기 위한 노력도 하고 흡연량을 줄이려고도 해보겠지만 번번히 실패하게 되는데 그럴 때 부모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어떤 체계적인 절차와 방법을 시도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금연침을 맞는다거나 금연학교에 입학해 그 프로그램을 따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경우 금연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으면 부모가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대충 한두 번의 노력으로 안된다고 쉽게 포기하지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때 올바른 행동, 규칙 준수라는 훌륭한 변화가 발생된다.

다음은 자동차 안전 이용에 관한 내용이다. ▶차를 기다릴 때 졸음 서서 질서를 지키고 ▶차량 탈 때 좌석 안전띠를 꼭매기 ▶차안에서 장난을 하지 않기

올바른 교통 교육과 안전한 교통규칙



김순희
주부명예기자

빠른 생활양식을 선호하고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로 위의 자동차가 증가 할 수록 어린이 교통 안전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 OECD 국가중 초등 학교 학생들의 인지적 학력수준은 상위권이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을 포함한 가장 많이 발생한 실정이다. 거의 모든 어린이의 교통사고 원인은 교통 안전을 무시한 태도나 행동, 규칙 위반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에서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지도와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때 올바른 행동, 규칙 준수라는 훌륭한 변화가 발생된다.

다음은 자동차 안전 이용에 관한 내용이다. ▶차를 기다릴 때 졸음 서서 질서를 지키고 ▶차량 탈 때 좌석 안전띠를 꼭매기 ▶차안에서 장난을 하지 않기

- ▶자동차에 내릴 때 차례로 내리기
- ▶차 옆으로 달리는 오토바이 등에 주의 하기
- ▶다음은 빠르게 길 건너기에 관한 내용이다.
- ▶차도에서 멀리 떨어져 길 안쪽으로 걸기
- ▶보도가 끊기는 곳에서는 우선 멈추기
- ▶여럿이 함께 걸을 때는 한 줄로 걸기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길에서는 왼쪽으로 걸기
- ▶장애물이 있을 때는 우선 멈춰 주변 살피기
- ▶길을 걸을 때는 장난하지 않기
- ▶다음은 빠르게 길 건너기 요령이다.
- ▶멈춘다.
- ▶왼쪽 오른쪽을 본다.
- ▶왼손을 들고 운전자와 눈을 마주친다.
- ▶확인한다. 차가 멈추었는지 꼭 확인한다.
- ▶손을 들고 오른쪽으로 뛰지 말고 걸어간다
- ▶다음은 안전한 길 요령이다.
- ▶차가 적게 다니는 길로 다니기
- ▶공사중인 도로를 피해서 다른 길로 다니기
- ▶조금 멀더라도 육교나 지하도 횡단시설 이용하기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이용하기

gk2151@hanmail.net

윤중성의 미국어 따라하기

68. 어젯밤엔 무얼 하셨나요?
What did you do last night?
왓디유두래스나잇?

* 많이 취했지요
I got drunk.
아이작 주령

69. 회의는 어땠어요?
How was the meeting?
하우위스더미팅?

* 전혀 진전이 없어요
The meeting is getting nowhere.
더미팅이스게링노웨어



☞문의:윤중성
(017-723-4977)
colyoon@nate.com

인조대리석 가공기계의 선두주자 성진기계산업



대표 이병욱



생산품의 전문화, 고급화로 생산공정라인에 꼭필요한 전문기계를 생산, 판매에서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직한 기업

◆ 영 업

- 목공기계 제작전문업체 (일반기계, 특수기계)
- 목재가공 자동화라인 설비
- 인조대리석 가공기계 및 자동화 라인설비
- 알루미늄, 아크릴 가공기계 제작
- 중고기계 매매 및 알선



본사: 포천시 가산면 마전리 591-13 / Tel : 031)541-2626 ~7, Fax : 031)541-2928 / 대표 : 이병욱